

화보로 보는 '2009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/디지털영상전' 이모저모 불황속에서도 힘찬 빛을 내뿜은 '사진인들의 축제 한마당'

아시아 최고의 사진영상분야 전시회로 손꼽히는 '2009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/디지털영상전' (이하 P&I 2009)이 지난 4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 본관 1층 태평양홀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. 금년으로 18회를 맞이한 이 전시회에는 국내 토종 카메라 업체인 삼성의 불참과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 여파로 예년에 비해 참가업체수가 30% 가까이 감소했지만 오히려 예년보다 관람객들이 대거 몰리면서 사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식지않는 관심과 기대심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. 올해 전시회에는 세계 20여개국에서 120여개 업체가 참가했고 전시기간동안 총 6만5천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.

취재/박지연 기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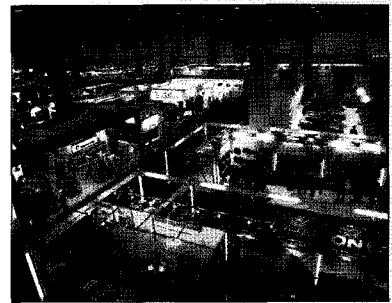
| 사진/임병고(프로사진가협회 회원) · 코엑스 제공



▶ 전시장 입장을 위해 관람객들이 줄서서 현장 등록을 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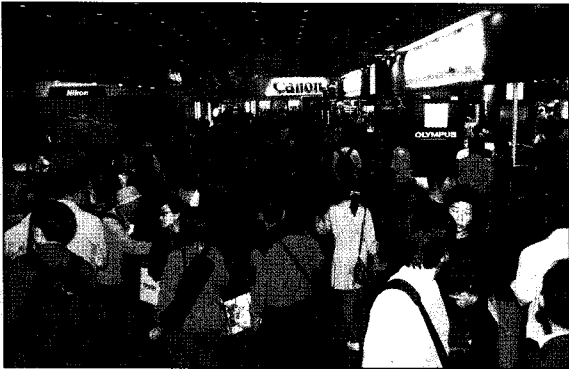


▶ 전시회 첫날부터 많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았다.



▶ P&I 2009이 지난 4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 본관 1층 태평양홀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. 전시회장 전경





▶20개국 120여개 업체가 참가한 나흘간의 전시 기간중 6만5천여 명의 참관객들이 다녀갔다.



▶(사진왼쪽부터)프로사진가협회 김정수 회장, 지식경제부 조석 실장, 올림푸스한국의 최재식 전무가 올림푸스 90주년을 기념하는 마이크로 포서드 모양의 케이크를 절단하고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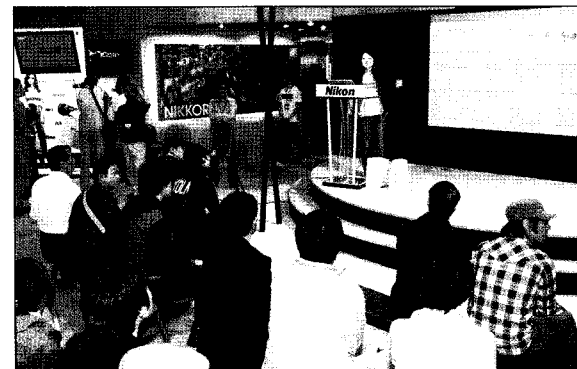
▶캐리마 이병국 사장으로부터 제품설명을 듣고 있는 한국광학기기협회의 박상진 회장과 지식경제부의 조석 실장



▶참관객들이 카메라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고 있다.



▶소니부스에서 참관객들이 소니제품을 이용하여 모델을 촬영하고 있다.



▶니콘 부스에서 열린 참관객 대상의 사진강좌 풍경



▶전시장 한쪽에는 PPA&ASP Loan Collection 공간이 마련돼 700여 점의 사진작품이 전시됐다.



▶올해로 두 번째이며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린 사진전문 페어인 '서울포토 2009'는 국내 사진인들의 견문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평을 얻었다.